

# “몽골 방송에도 부처님 법음이...”

## 조계종 설립 지원으로 FM 라디오 불교방송국 개국

조계종(총무원장 지관) 지원으로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에 FM 라디오 불교방송국이 개국했다.

조계종과 몽골 간담사는 6월 27일 간담사에서 조계종 사회국장 도은 스님과 간담사 총무원장 초이잡츠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 불교방송 ‘고동의 멜로디(Melody of Conch)’ 개국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초이잡츠 스님은 ‘불교방송을 개국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의 조계종과 스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몽골 지역에 불교를 포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은 스님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대신해 “각종 미디어와 인터넷망을 통해 모든 세상이 한 가족처럼 가까워진 요즘 몽골 불교방송이야말로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매우 뜻 깊은 불사”라며 “몽골 불교 스스로 외세종교에 맞서 동북아의 자랑스러운 불교국가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축사했다.

몽골지역 젊은 층을 겨냥한 대중적인 포교방송을 지향하는 ‘고동의 멜로디’ 방송은 주파수 97.5MHz로 몽골국립방송의 안테나를 통해 울란



6월 27일 몽골 간담사에서 열린 몽골 불교방송 개국식. 간담사 총무원장 초이잡츠 스님과 조계종 사회국장 도은 스님(왼쪽)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바토르 전역에 방송된다. 방송시간은 매일 오전 7시40분부터 밤 11시 40분까지며 아침 저녁 예불과 불교 교리, 청소년 상담, 음악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간담사는 이번에 개국한 라디오 방송국이 포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사찰에서 부정기적으로 신문을 발행하긴 했지만 인쇄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새로운 포교방편이 생

겨, 몽골불교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울란바토르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100만 명. 몽골 전체인구가 270만 여명인 것과 비교해 보면 몽골 국민 3분의 1을 대상으로 부처님 법음을 전하는 셈이다. 라디오방송의 범위가 울란바토르로 한정돼 있지만 다른 지역 몽골인들도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 인쇄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새로운 포교방편이 생

다와스룬 스님은 “딱딱한 교리방송 위주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경전이나 교리에 대한 이야기나 법문 등을 전하고, 음악방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은 지난해 7월 몽골에 불교 방송 설립 지원을 약속하고, 3월 간담사에 3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날 개국식에서 조계종은 참석자들에게 소형라디오를 선물했다.

김성우 기자



‘반갑다 연우야’ 봉사단(사진 오른쪽)은 6월 29일 인천 선원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전개했다.



## “우리 이웃 건강지킴이가 찾아왔어요”

### ‘반갑다 연우야’ 강화군 선원면서 의료봉사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김의정)이 운영하는 불교의료봉사단 ‘반갑다 연우야’는 6월 29일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2리 마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업무용 서울인 치과원장과 간호사·치위생사를 포함한 의료봉사단 15명은 지산2리 주

민 60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펼쳤다. 진료행사에서 치과검진과 진료뿐만 아니라 안마처방을 이용한 전신·발 마사지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하재갑 지산2리 이장은 “농촌지역이 의료소외지역인데 이렇게 찾아와줘 지역주민 모두가 고마워한다”며 “농촌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기회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반갑다 연우야’는 면사무소나 지역 농협에 신청서와 안내서를 배부하고 진료신청을 받아 삼마을·벽촌과 같은 의료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무소득 어르신, 아동 등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02)733-7277

노덕현 기자

## “음식 만들기도 수행의 일부”

### 첫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공양 소임자 교육

사찰음식 소임자 교육이 처음으로 열린다.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공양 소임자(원주스님·별파·공양주)에 대한 교육이 7월 15·16일 2차에 걸쳐 전국비구니회관 법통사에서 진행된다.

조계종 총무원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사찰에서 수행하는 스님과 재가자 공양을 담당하는 소임자에게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인지도시키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할 여백한 공양으로 진정한

사찰음식문화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음식을 먹는 행위와 만드는 과정도 수행의 일부이며 먹을 거리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교육은 선재·대안·운아 스님의 이론과 실습으로 사찰조미료 만들기 및 영양학뿐만 아니라 여름별식과 저장음식 만드는 법 강좌로 진행된다. (02)2011-1776

가연숙 기자

구독신청·기사제보 | 02-2004-8200

## 보림선원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

###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서울 정릉 보림사(조실 목산)는 7월 30일 오후 8시부터 8월 5일 오전 7시까지 보림선원 선방에서 제69회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를 개최한다.

35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법회는 거사선종(居士禪風)을 일으킨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의 법문 테

이프 들기와 좌선을 병행하며 일주일 내내 참선하는 수행프로그램이다. 이 법회를 거쳐간 불자들은 불교법조인회장 전창열 변호사를 비롯해 대불련총동문회 명예회장 명호근 쌍용양회 부회장, 김민환 前 국민대 총장, 우리는선우 대표 성태용 교수(건국대), 청주지방검찰청 김진태 검사장 등 1000여명에 달한다. (010)6332-4096 김성우 기자

김성우 기자

### 비로자나불 비상하강시스템 시연

조그마한 불꽃이라도 감지되는 순간, 해인사 국보급 비로자나불상 2기가 지하로 비상 하강되는 소방 안전시스템이 시연된다. 해인사(주지 현응)는 7월 15일 오후 1시 하안거 정기소방훈련을 실시하면서 문

화재비상하강시스템을 시연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설계된 이 안전시스템은 낙산사와 승례문 화재를 계기로 주요 목조문화재를 보호하는 장치로써 첫 선을 보이는 것. 이 장치의 실효성이 검증되면 향후 중요 성보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우 기자

김성우 기자

## 전국교사불자연합회

### 8월 2~4일 수련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창훈)는 8월 2-4일 하동청소년수련원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교사불자연합회 여름수련회와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직무연수를 병행해 실시하는 이번 수련회는 불교전문문화 바르게 이해하고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수련회는 파라미타 소개, ‘반야사상의 실천’ ‘음악을 통한 불교문화’ ‘불교심리학의 상담적 기법’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등을 주제로 한 특강, 108배, 평가회, 회향식 등으로 진행된다. 찾잔, 천연염색, 천연비누 만들기 등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도 체험하게 된다. 김성우 기자

김성우 기자

## ‘2008 회당문화축제’ 개최

### 7월 28일부터...독도아리랑 콘서트 등 마련

제 8회 회당문화축제가 7월 28-30일 울릉도 일대에서 개최된다. 진각종 회당문화축제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복지연대가 주관하는 2008 회당문화축제는 더욱 탄탄한 기획과 행사진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독도아리랑-삼색울릉, 삼색여행’을 슬로건으로 하는 올해 회당문화축제는 7월 28일 통구미항에서 군장병 250여 명을 초청하는 ‘바다 지키기 위문콘서트’, 29일 저동항 방파제에서 ‘생명사랑 불꽃콘서트’, 30일 도동항 특설무대에서 ‘YB와 함께하는 독도아리랑 콘서트’ 등 세 가지 색깔로 찾아간다. 이와함께 부대행사로 독도와 나라사랑 캠페인, 페이스 페인팅, 나염체험, 풍등피우기 등의 체험행사와 독도 및 회당문화축제 사진전이 열린다. 특별행사로 29일에는 대형 불꽃쇼가, 30일에는

우산국 페레이드 등이 펼쳐진다. 회당문화축제는 1902년 울릉도에서 탄생한 진각종 회당 대종사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된 문화축제다. 이제 명실상부한 울릉도 최대의 지역문화축제로 정착했다. 무엇보다 여러 전문영역의 민간자원봉사자와 동호회 등이 중심이 된 준비위원회 운영과 울릉군민의 협조 및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

회당문화축제 준비위원회측은 “회당문화축제가 불과 8년만에 지역문화의 발흥과 문화복지의 개념이 어우러진 국민화합의 축제로 자리매김돼 가고 있다”며 “울릉도의 미(美)를 더욱 새롭게 하는 지역문화 관광상품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02)6328-0136

김성우 기자

## 내 몸 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 안내

### 1.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제 시 업지순툼 뿌리 밑을 비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낮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름,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혈관, 스트레스, 적병(와병), 간장, 신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제환),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지질, 정력증강(회춘), 병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파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물이 낮기 시작 합니다. 마. 비정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낮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알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자신 건강관리/ 따주기 사회봉사/ 건강 복 짓기 / 생활속 비상 따주기 (풍, 급제, 기절, 경기 등)

###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 가. 1일차 (토요일 09:00 ~ 22:00)
  - ◆ 우주의 기운
  -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 5형으로 본 인체

-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 신비한 비장따주기
-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 병 예방 비법
- ◆ 실습

### 4.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사: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 (1)일 정: 2008. 7. 26(토) 오전 9시 ~ 7. 27(일) 오후 1시 (금요일 저녁까지 도차)
  - (2)수강료: 34만원(음향도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체 제공)
-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 (선착순 10명)
- 다. 장소: 충남청양교육장
- 라. 준비물: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 문의처: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 ●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 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 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기액	물질손해확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시상 수술비용

#### ●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시(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 ● 가입시 필요자료

- ◆ 각 건축물의 건축(중개축)년도 및 면적
- ◆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 ◆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가입 및 상담 문의

011-648-1203 / 010-9996-7700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6호

동부화재 서일석(無着) 합장